

정가 라운지

박준영 “학생수 기준 교원배치 철회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내년부터 학생수 기준 교원배치계획이 전면 시행되면 전남지역 교사 수가 크게 줄 것이라며 이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난실 “광주시장 출마”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박 지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면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남 지역 소규모 학교는 교원 부족과 함께 학생·교원의 타지역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올해도 210명의 교사가 대도시로 옮겨갔고 내년에는 무려 783명의 도내 교사가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며 “학생수가 적은 지역은 교원을 아예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민주당 일당 체제를 깨뜨리고 ‘민주 대 비민주’의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고, 생활 속 정치를 실현할 것이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1965년 강진 출신인 윤 위원장은 바깥야학 감사,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총무기획국장, 민노당 광주부지부장, 광주시의원, 진보신당 부대응 등을 지냈다.

박 지사는 “정부는 학생수 기준 교원배치 계획 철회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해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 조직위원장 임명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지역 사고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등 전국 10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고흥·보성 당협 조직위원장에, 전양환 영암신북농협 이사와 홍금우 조선대 교수를 장흥·강진·영암과 나주·화순 당협 조직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또 광주시 북구를 조직위원장에 김광진 광주시당위원장, 광주시 광산을 조직위원장에 김경업 당 나눔봉사위원회 광주시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은방 북구의원 장관상

광주 북구의회 이은방 의원(민주·마 선거구)은 21일 지역사회 발전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운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정욱기자 jwpark@

주승용 내달초 출마 선언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보여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이 오는 23일 하기로 했던 출마기자회견을 1월 초로 연기했다.



주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더욱이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당정은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할 상황이라서 출마기자회견은 내년 초에나 해야 할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출마선언문은 거의 작성을 한 상태”라고 말해 출마 준비가 거의 끝났음을 암시했다.

미국 밴드 쿠바 공연

20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미국 밴드 ‘롤 앤 더 갱’이 콘서트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쿠바 여행 제한과 로큰롤, 힙합 등 미국 음악에 대한 쿠바 정부의 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롤 앤 더 갱’은 최근 쿠바에서 공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국 밴드가 됐다.

연희뉴스

5·18 교육관 내년 5월 개관

광주 ‘민주·인권도시 육성 시민위’ 29일 첫 회의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등 20개 세부사업 확정

광주시를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인권 증진 및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야 할 20개 과제를 확정했다.

내년 신규 추진과제는 5·18 역사공원 조성사업(200억원), 5·18교육관 건립(30억원),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 등으로 모두 314억원(국비 205억원·시비 109억원)이 투입된다.

5·18 역사공원은 서구 쌍촌동 기무부대 옛터에 들어설 예정이며, 시는 이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이관받기 위

해 현재 협의 중이다. 5·18 교육관은 서구 치평동 옛 광주시 양묘장에 건립되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시는 5·18 교육관을 내년 5·18 30주 행사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인 5·18 기념문화센터 교육 기능 재고와 5·18 전야제의 축제성 강화, 민주, 인권,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 그동안 추진해온 17개 과제는 지속 추진된다.

5·18 국립묘지와 구묘역 연계루트 조성, 유네스코 평화도시 프로젝트 참여, 인권·평화 문화 예술가 지원 광주예술공동체 설립은 과제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사업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9일 ‘인권증진 및 민주, 인권, 평화 도시 시민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위원회 위원은 최정만 행정부시장, 문인 자치행정국장, 김옥봉 사회복지국장, 김동원 전남대 명예교수, 조상균 전남대 법학과 교수, 김태봉 광주지방변호사 이사, 안성례 오월 어머니집 관장, 이명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정장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현지 원효사 주지스님 등 15명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추진계획의 성과를 검토한 뒤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광주를 국제적인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미국 밴드 ‘롤 앤 더 갱’이 콘서트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쿠바 여행 제한과 로큰롤, 힙합 등 미국 음악에 대한 쿠바 정부의 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롤 앤 더 갱’은 최근 쿠바에서 공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국 밴드가 됐다.

“투자유치 성과” 전남 인구 감소폭 크게 줄어

올 유출 7천명 밀들어

전남도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도내 인구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사업소·출연기관 간담회에서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매년 곡성군 인구만림이

나 많은 3만6천여 명이 전남을 빠져나갔다”며 “하지만 지난해 1만8000여 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으며, 올해도 지난 10월 말 현재 외지 유출인구가 7천 명을 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유치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도내 인구 유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박 지사는 “인구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출산이 늘고 사망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전남도가 총력 추진해온 투자유치의 결과, 지난 5년간 7만 명의 일 자리를 창출해 매년 평균 1만3천여 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등의 성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고 강조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겠다”

정찬용 前 인사수석 광주시장 출마 선언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민주정권을 재탄생하고 광주를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로 바꾸겠다”며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민주세력이 지역과 이해관계를 넘어 단결하고 통합해서 민주정권 재탄생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가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적 위기,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3대 위기를 극복해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며 ▲생산적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균형적 성장을 통한 도시공동체 구현 ▲지속적 성장을 통한 환경친화도시 건설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무소속인 정 전 수석은 민주당 입당 여부와 관련해 “야권후보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광주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만큼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정 전 수석은 “군사공화 이전은 국방부 등의 등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준비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군공항과 묶어줘야 할 것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 면밀히 연구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0년 영암 출신인 정 전 수석은 광주서중과 광주일고,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YMCA 사무총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청와대 인사수석, 여수엑스포유치위 부위원장, 현대·기아차 그룹 인재개발부장 등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제작 지원 3D 애니메이션

‘산타 납치작전’ 국내외 방영

광주시가 제작 지원한 3D 애니메이션 ‘산타 납치작전’(포스터)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국내외 물론 캐나다 전역에 방영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3D애니메이션 ‘산타 납치작전’이 국내에서는 24일 오후 1시 SBS TV, 캐나다(23일~31일)에서는 ‘쿠키자 엔터테인먼트’의 자체 공중파를 통해 송출된다.

광주시는 ‘산타 납치작전’을 ‘CGI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 프로젝트로 선정, CGI장비, 전문인력, 제작비 3억원을 지원했으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주)에넬과 캐나다 ‘쿠키자 엔터테인먼트’, 국내 ‘에넬메스’가 공동 기획·제작했다.

즐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이 산타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산타클로스를 납치하면서



빛어지는 사건을 통해 ‘사랑과 나눔’이라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작품의 제작인력 40여명 가운데 30여명이 광주시 CGI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수료생들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윤영기자 penfoot@

Large advertisement for 'Seogi Bocheonggi' (Seogi's Bocheonggi)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Seogi Bocheonggi', 'Seogi's Bocheonggi', and contact information like '1578-8489/011-322-9100'.